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에 대해 판단하고 수용하는 비판적 읽기는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나 형식·표현을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와, 숨겨진 내용들을 짐작하는 추론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과 형식·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이루어진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필요한데, 그 준거는 내용에 대한 준거와 형식·표현에 대한 준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내용에 대한 준거로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은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이며 옳은지에 대한 것이다. 공정성은 글의 주제, 필자의 관점과 태도와 관련하여 이것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신뢰성은 글의 내용이나 글에 사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이다. 독자가 이러한 준거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먼저 글의 내용을 사전 등을 활용하여 읽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 의미, 주제 등 사실적인 것들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글에는 필자의 의도나 입장 등이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러한 것들을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파악하고 추론한 것들을 내용에 대한 준거에 따라 판단하며 읽는 것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이다.

㉠ 형식·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비판적 읽기를 한다. 예를 들면 독자는 글의 구조가 글의 주제나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글에 사용된 비교나 대조가 글에 나타난 관점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사용한 비유적 표현 등이 내용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적절한 형식·표현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독자는 단순한 비판이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주제의 글을 찾아 입장이나 구조를 비교하며 읽거나 토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적인 읽기 과정 안에서 비판적 읽기를 함으로써 독자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독자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② 독자는 비판적 읽기에서 형식·표현적 준거를 내용적 준거보다 우선 사용한다.
③ 독자는 추론적 읽기에서 글에 담긴 필자의 태도가 객관적인지 판단한다.
④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의 적절성을 사실적 읽기로 판단한다.
⑤ 독자는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비판적 읽기를 한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 ~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내가 독서 시간에 선택해서 읽은 글은 '인공 지능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글의 첫 부분에 ⓐ 인공 지능이라는 말이 쓰인 시기가 나와 있어 인공 지능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 인공 지능의 발달 과정 부분을 읽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 가며 뜻을 파악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인공 지능 고도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 인공 지능 고도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필자가 인공 지능 고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글에는 여러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 그 자료 중에는 출처가 없어서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또한 ⓔ 인공 지능 고도화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른 입장의 글을 찾아 읽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① ⓐ: 사실적 읽기를 통해 표면적 내용을 파악하였군.
② ⓑ: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였군.
③ ⓒ: 추론적 읽기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입장을 추론하였군.
④ ⓓ: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였군.
⑤ ⓔ: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의 공정성을 판단하였군.

3. 윗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자는 ㉠의 과정에서 글의 구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겠군.
② ㉠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읽은 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겠군.
③ ㉠을 통해 글에 나타난 표현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겠군.
④ 독자는 ㉠의 과정에서 글에 사용된 비교나 대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겠군.
⑤ ㉠이 가능하려면 글의 내용과 형식·표현에 대한 사실적 읽기가 필요하겠군.

[4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 제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메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과학의 발견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가령 방사성 동위 원소의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 입증되었다. 메야수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메야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 공전하는 달은 ㉢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메야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굿맨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와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굿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계에 대한 굿맨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을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후대에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굿맨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굿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과학 분야에서 파생된 특정한 철학 이론의 확립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 변화를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시대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된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관주의자는 감각의 작용이 있어야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메야수는 상관주의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 영역을 한정했다고 보았다.
③ 메야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았다.
④ 메야수의 철학은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⑤ 근대 철학자 중에는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의 실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6. (나)의 버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버전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버전은 세계의 실재성이 확증된 이후에만 구성될 수 있다.
③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도 버전은 존재한다.
④ 버전의 적합함은 버전의 '옳음'을 통해 판단된다.
⑤ 버전은 '옳음'을 지녔기 때문에 고정불변이다.

7. ㉠~㉢과 관련지어 '상관주의자'와 '굿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빨간 사과'는 상관주의자에게 사유와 분리된 대상이고, 굿맨에게 버전에 의존적인 대상이다.
② 상관주의자와 굿맨 모두, 사과가 실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에 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옳음이 있다고 본다.
④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이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이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되어야 옳은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굿맨과 달리 상관주의자는 ㉡을 대상, ㉢을 사유로 파악한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철학자 A는 인식 독립적인 대상을 부정하면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철학자 B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철학자 C는 인과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반복이고,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① '선조적인 것'에 대해서 (가)의 메야수는 실재한다고 보고, 철학자 A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② 철학자 B와 달리 (가)의 메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재하지만 '감각되는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③ (가)의 메야수와 철학자 C 모두 인과관계에서 필연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겠군.
④ (나)의 굿맨에 따르면 철학자 B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감각되는 대상'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겠군.
⑤ (나)의 굿맨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버전이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철학자 C는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으로 보겠군.

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도와서 이루게 함.
②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③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④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김.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카메라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여기에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만일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의 전체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센서의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한다.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다. 가령 어느 ADC의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이 0～1볼트(V)라고 하자.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0V부터 0.5V보다 작은 구간은 흑으로, 0.5V부터 1V까지의 구간은 백으로 2단계로 명암을 구분한다. 만일 데이터 폭이 2비트면 0～1V의 구간을 4단계로, 4비트면 16단계로, 8비트면 256단계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 시간이라고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된다.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일대일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이만큼의 ADC를 이미지 센서에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이다.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 화소 평면의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바꾼 다음,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다.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고 10개의 ADC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 블록으로 만들고 각 블록을 10개의 ADC에 순서대로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러면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므로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다. 하지만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의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된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보다 작다.
② 데이터 폭으로 표현하는 분해능은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이다.
③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화소와 같은 형태로 나열된 데이터의 배열이다.
④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
⑤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빨강, 초록, 파랑의 화소는 각각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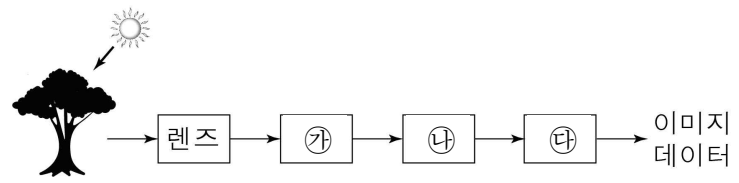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DC의 데이터 폭을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양이 늘어난다.
② ADC의 변환 시간을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이 줄어든다.
③ ADC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변환 시간이 늘어난다.
④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양이 늘어난다.
⑤ 전체 화소의 수를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이 줄어든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디지털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피사체의 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	㉯	㉰
①	ADC	화소 평면	다중 스위치
②	ADC	다중 스위치	화소 평면
③	화소 평면	다중 스위치	ADC
④	화소 평면	ADC	다중 스위치
⑤	다중 스위치	화소 평면	ADC

13.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②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즐겁다.
③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④ 너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다.
⑤ 오랜만에 친구와 차를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 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 순위자와도 제2 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 1 : 1이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②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③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
⑤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②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법인에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 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①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 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②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 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③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④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X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므로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더니
ⓐ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 일간모옥(一間茅屋)이 비 새는 줄 알던가.
누더기 옷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을 줄 알던가.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춘산(春山)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하정(夏亭)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
추천(秋天)에 달 맞아 밤 드는 줄 어이 알며
동설(冬雪)에 시흥(詩興)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
사시가경(四時佳景)을 아모란 줄 모로라
말로(末路)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
인간 시비(是非)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 년을 근심할까
우활할샤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아침에 누워 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활을 내 설마 어이하리.
그래도 애달프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일백 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네.
희황천지*에 잠깐이나 놀아 보면
요순(堯舜) 일월을 잠시나 쬘 것을
ⓒ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도다.
한만(汗漫)한 정회(情懷)를 누구더러 이르려뇨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

(중략)

만 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
우활한 심혼(心魂)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인간에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꼬.

– 정훈, 「우활가」 –

* 애친경형 :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
* 충군제장 :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함.
* 희황천지 : 중국 복희씨 때의 세상.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

(나)

일곡(一曲) 승계산에 생애를 부쳐 두고
어부와 나무꾼을 내 일로 삼아 백 년을 보내리라
어즈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제1수>

삼곡(三曲) 낚싯대 하나를 석양에 비껴 들고
맑은 강 굽어보니 백어(白魚)도 많고 많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 <제3수>

육곡(六曲)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 물고기와 새우 벗을 삼고 물과 돌을 ㉡ 집을 삼아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제6수>

– 이중경, 「오대어부가구곡」 –

* 무이구곡 : 중국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

(다)

나는 천성이 **구름** 보기를 좋아하지만, 그게 왜 즐거운지는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다. 구담의 군옥봉 중에 ㉢ 서루(書樓)를 짓고 '다백운(多白雲)'이라는 편액을 걸고는 혼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

무릇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장함은 천지의 마음이요, 구름의 묘용(妙用)이다. 그러나 온 세상에 구름이 끼어 비가 잔뜩 내리더라도 풀 하나 나무 하나가 혹 그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 군자는 또한 걱정하나니,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띤다.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 없음**에 있거늘 대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접하는 일이 무궁한 까닭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대저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만일 종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도리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이를 싫증 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베옷 입고 가죽띠를 두르며,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史書)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몸을 튼실하게 만들어 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든 편안하며, 오래 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백운루(多白雲樓)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

(중략)

또한 구담의 뭇 봉우리가 비록 기이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무상함이 구름의 그것에는 못 미치고, 또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은 못하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매한가지다. 그러니 어찌 종신토록 **외물**(外物)에 얽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아!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중 구담 가에 누각을 세워 일 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구름 같은 뭇 봉우리를 바라보고, 또 장차 밭 갈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며, 칡을 캐어 옷을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글을 읽고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 즐거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없이 홀로 앉았다가 어쩌다 맑은 날을 만나, 때때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그것이 보여 주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천지의 마음을 징험하리니, 그 즐거움은 또한 말 없음에 있을 터이다. 이렇듯 다백운루에는 진실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많으니,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에 기문(記文)을 짓는다.

– 이인상, 「다백운루기」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② (가)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다)는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③ (가)와 (다)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다.
④ (나)는 장소의 이동을, (다)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다.
⑤ (가), (나)는 점층적 표현을, (다)는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가)에서 '우활'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활'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우활'함을 지켜 나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①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②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았다고 한 것에서 세상과 불화하여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이 나타나는군.
③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군.
④ '옛사람 되고 싶'다고 한 것과 '만 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었다고 한 것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⑤ '우활한 심혼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온다고 한 것과 '인간에 혼자 깨어' 있다고 한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② ⓑ: 자신의 처지가 애달픈 이유를 시대를 잘못 타고난 데에서 찾고 있다.
③ ⓒ: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⑤ ⓔ: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애정에서 생겨난 정서적 반응이다.

21.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가 가난을 개의치 않는, ㉡은 화자가 주변의 사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② ㉠과 ㉡은 모두,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는 곳이다.
③ ㉡은 현실의 공간을, ㉢은 상상의 공간을 나타낸다.
④ ㉡은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은 삶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⑤ ㉠, ㉡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은 긴장감이 해소되는 곳이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감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 (가)의 '춘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에서 화자는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군.
② (가)의 '동설에 시흥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에서 화자는 자연을 추위도 잊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군.
③ (나)의 '어즈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을 무이구곡에 비견될 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④ (나)의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에서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⑤ (나)의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에서 화자는 자연을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2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걱정했던 것은 '나'의 즐거움이 '외물'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②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말 없음'에 있어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싫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산'보다 '구름'에서 '나'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상하기 때문이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과 '산'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④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에 있다고 '나'가 말한 것은 '공부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나'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이 '외물'에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비러오마. 나의 마음의 무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 버려라.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魚族)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詩).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워 가며 **기다**린다.

– 김기림, 「태양의 풍속」 –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윗잎 몇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명령형 종결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다만 한 번이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불결한'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성을 상징하고 있다.
③ ㉢ :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④ ㉣ : '나를 깨운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일깨우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⑤ ㉤ :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는 내용 면, 형식 면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내용 면에서는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한편 형식 면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대립적 시어를 통해 구현한다.

① (가)의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나)의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② (가)의 '아침'과 '밤', (나)의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이겠군.
③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④ (가)의 '어두운 병실', (나)의 '저녁만큼 저문 것'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⑤ (가)의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의 '절벽을 오르'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낸 것이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A]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체해 두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체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 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쫓겨 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

* 지면 : 만나서 알 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한다.
②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③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④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그 마음을 받아 주리라 예상한다.
⑤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
② 동시적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③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여 한 인물의 두 행위가 대립되는 원인을 밝힌다.
④ 서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⑤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그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다.
② ㉡은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③ ㉢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나'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④ ㉣은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다.
⑤ ㉤은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 말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별을 보여 드립니다」에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①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 생각한 것에서 '그'가 '나'에게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겠군.
②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③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겠군.
④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겠군.
⑤ '나'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라고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임을 알 수 있겠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비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옴에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시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일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시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 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차시 만청길이 파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윤이 대신 도임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차설. 정몽렬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 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흉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 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 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 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삭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륙 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삭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시랑이 대경 대희하여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

3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임금의 의중과 다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임금을 곤란하게 한다.
② 임금은 안대후가 심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하들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③ 안경이 안대후를 인재로 추천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화신은 안대후가 도적을 물리쳐야 함을 주장한다.
④ 안대후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대순과 함께 갈 것을 청한다.
⑤ 임금이 안대후에게 황금을 내려 주며 즉일 출발할 것을 명령하자 형제는 집으로 가 행장을 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육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에서 실현된다.
② ㉠의 이후에도 ㉠에서 만난 인물과의 인연을 이어 간다.
③ ㉠의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간 갈등이 ㉠을 통해 해소된다.
④ ㉠에서의 발화는 ㉠의 이후 인물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제시해 준다.
⑤ ㉠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이 ㉠에서 얻은 물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전 소설에서 '조력자'는 출신 가문, 능력의 특성, 행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① 애주의 태수인 '왕정윤'은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 만청길을 파면하고 여화를 풀어 주었다.
②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 강변으로 가서 부인 경 씨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③ '화 소저'는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략을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 줌으로써 안대후를 도왔다.
④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부인 엄 씨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
⑤ 사명산에서 온 '노인'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 '두 부인'이 강도에게서 벗어나 애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징세비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곤경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 구도에 포함하여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는 것이다.

① 만청길은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정몽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를 각각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②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로 서술되고, 정몽렬이 화신을 '우리 무리'와 함께 언급하는 것에서,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③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략을 전달하고 정몽렬이 화신에게 계략을 제안하는 것에서, 악인이 대리자와 공모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④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정몽렬이 선인을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가족을 해코지하여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⑤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렬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 품사를 혼동할 수 있다. 예컨대, '이것은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기해라.'에서 '나머지'가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이것'과 같은 품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명사로서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사물이든 대신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명사로서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이라는 의미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길게 남기다.'와 '길이 남기다.'에서 '길게'와 '길이'는 '길-'의 의미와 관련되므로,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길게'는 '길-'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용사의 활용형이고, '길이'는 '같이', '깨끗이'처럼 '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품사 분류 시에 유의해야 한다. '박자가 늦다.'에서 '늦다'는 속도가 느림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였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에서는 어간 '늦-'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동사의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늦다'는 형용사, 동사의 두 가지 품사로 쓰인다. 다른 사례로 '열'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므로 수사로만 분류하기 쉽다. 하지만 '열 명이 왔다.'에서 '열'은 관형사인 '한'이나 '두'와 같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낫다.'의 '그'는 대명사로 분류하고, '그 책보다는 낫다.'의 '그'는 관형사로 분류한다.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벼개를 노피 벼엿고[베개를 높이 베고 있고]'의 '노피'는 현대 국어의 '높이'처럼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사로만 쓰이는 '새'가 중세 국어에서는 '새를[새것을]'처럼 '새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도 쓰였다. 이처럼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대응하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다른 경우도 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맏이'의 의미로 쓰이던 명사 'ᄆᆞᆯ'이 현대 국어에서는 접사 '맏-'이 된 것처럼 ⓒ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이 장소에서도 잘 ㉡ 크는 식물이 ㉢ 둘이 있다.
○ 크기가 ㉣ 큰 무가 ㉤ 여러 개가 있어서 ㉥ 반씩 나누었다.

① ㉠과 ㉤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② ㉠과 ㉥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③ ㉡과 ㉣은 어간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④ ㉢과 ㉥은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⑤ ㉣과 ㉤은 어미가 결합하며 뒤에 오는 성분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자 료 >

(가) 중세 국어 : 어늬(어느 + ㅣ) 解脫이 아니리오
[현대어 풀이 : 어느 것이 해탈이 아니리오]
(나) 중세 국어 : 기피(깊- + -이) 잇ᄂᆞᆫ 龍이 소리 업고
[현대어 풀이 : 깊이 있는 용이 소리 없고]
(다) 중세 국어 : 窓ᄋᆞ로 여서(엿- + -어)
[현대어 풀이 : 창으로 엿보아]
(라) 중세 국어 : ᄂᆞᆯ(ᄂᆞᆯ + ᄋᆞᆯ) 사ᄒᆞ라
[현대어 풀이 : 날것을 썰어]
(마) 중세 국어 : 니르고져 홇 배(바 + ㅣ) 이셔도
[현대어 풀이 :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① (가)에서 중세 국어의 '어느'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어느'처럼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중세 국어의 '기피'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부사 '깊이'와 달리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중세 국어의 '엿-'은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접사 '엿-'과 달리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라)에서 중세 국어의 'ᄂᆞᆯ'은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접사 '날-'과 달리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⑤ (마)에서 중세 국어의 '바'는 ⓒ의 사례로, 현대 국어의 '바'와 달리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아래의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각각 무엇인지 찾고, ㉠ ~ ㉣ 중 두 가지가 일어나는 예를 생각해 보자.

흙화덕[흐콰덕], 드넓다[드널따]
끊겼다[끈켠따], 겉치레[걷치레]

○ '흙화덕'과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 '흙화덕'과 '끊겼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 '끊겼다'와 '겉치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 '끊겼다'와 '드넓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 ㉣

① ㉠, ㉡이 모두 일어난 예 : 밝히다[발키다]
② ㉠, ㉢이 모두 일어난 예 : 닭고기[닥꼬기]
③ ㉠, ㉣이 모두 일어난 예 : 깎고서[깍꼬서]
④ ㉡, ㉢이 모두 일어난 예 : 숱하다[수타다]
⑤ ㉡, ㉣이 모두 일어난 예 : 단팥죽[단판쭉]

38.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 중에는 ㉮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는 것이 있고, ㉯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것도 있다. 한편 ㉰ 각각의 어근이 원래 지닌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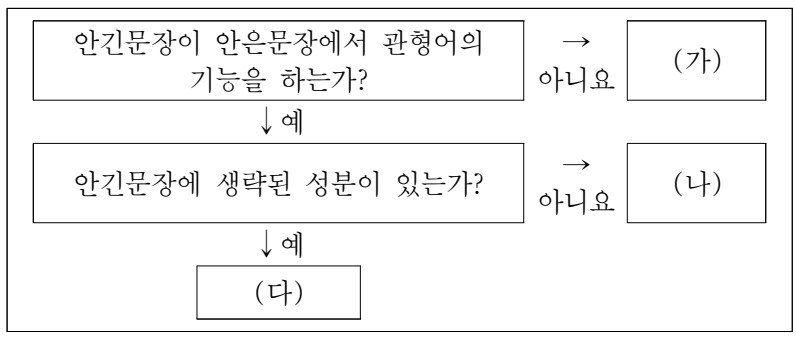
ㄱ. 시냇물 주위로 논밭이 펼쳐진 경치가 아름답다.
ㄴ. 오늘 오랜만에 점심으로 보리밥 한 그릇을 먹었다.
ㄷ. 버스가 돌다리를 건너 우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ㄹ. 지난밤 폭설로 인해 눈이 얼어 길바닥이 미끄러워졌다.
ㅁ. 그는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① ㄱ의 '논밭'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ㄴ의 '보리밥'은 두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ㄷ의 '돌다리'는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ㄹ의 '길바닥'은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⑤ ㅁ의 '피땀'은 두 어근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므로 ㉰에 해당한다.

39.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관형사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이때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아래의 그림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자료]
ㄱ.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ㄴ. 책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기는 불가능하다.
ㄷ.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ㄹ.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ㅁ. 형이 내게 아홉 시까지 집에 오라고 말했다.
ㅂ. 나는 그 사람이 너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ㄹ, ㅂ	ㄷ, ㅁ
②	ㄱ, ㄷ	ㄴ, ㅁ	ㄹ, ㅂ
③	ㄴ, ㅁ	ㄹ, ㅂ	ㄱ, ㄷ
④	ㄴ, ㅂ	ㄷ, ㄹ	ㄱ, ㅁ
⑤	ㄹ, ㅁ	ㄴ, ㅂ	ㄱ, ㄷ

[40 ~ 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방송 후 진행자가 작성한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멋대로 맛있게'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네요. 맛난 요리를 정성스레 만들어 볼게요. ⓐ 오늘은 지난주 방송의 시청자 투표 결과대로 카르보나라를 만들 거예요. 우리 방송은 실시간이잖아요? 혹시 제가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기! 그럼 실시간 채팅 보면서 방송할게요.

[A]
사과 오늘 요리 과정 다 메모할 거예요! 근데 조리대가 잘 안 보여요.

화면에 제 얼굴만 크게 나오고 있었네요. (카메라의 높이를 조절하며) 사과 님, 이제 조리대 잘 보이죠?

재료 소개 차례입니다. 경성 치즈, 달걀, 후추가 필요하고요, 스파게티 면, 소금, 베이컨도 있어야 해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표고버섯과 말린 고추, 다진 마늘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을 8분간 삶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B]
꽃잎 ○○ 님, 지난번 방송에서도 경성 치즈가 나온 적이 있죠? 경성 치즈가 뭐예요?

꽃잎 님, 경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적은 단단한 숙성 치즈예요. 경성 치즈는 고소하고 풍미가 있어 카르보나라 재료로 적절해요.

면이 익는 동안 적당한 양의 베이컨을 중간 불로 볶을 건데, 베이컨을 볶다가 필수 재료가 아닌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볶으려고 해요. 뭐가 좋을까요?

[C]
들판 저는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이 어우러져 나는 향이 좋아요.

들판 님이 말씀한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 당첨!

베이컨이 노릇해지고 있네요. 기름이 많이 나오니 기름을 조금 닦고 나서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을 넣어 줄게요. ⓒ 쉽게 타니까 주의하면서 중간 불로 바싹 볶을 거예요.

나무 ○○ 님, 스파게티 면 삶을 때 소금 넣어야 하는 거 맞죠? 아까 안 넣으셨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시계를 보며) 면을 삶은 지 4분 됐군요. 여러분은 소금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금을 넣을게요. 나무 님, 감사합니다.

멍멍 그런데 면을 삶을 때 꼭 소금을 넣어야 하나요?

멍멍 님, 면에 소금 간이 배어야 하니까 간간한 소금물로 면을 삶아야 해요.

[D]
냠냠 삶는 물이 짜면 면이 더 쫄깃해진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더라……. ○○ 님,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네! 간간한 소금물로 면을 삶으면 면이 그 물을 점점 머금고 나서 면 속 수분이 일부 소금물로 빠져나가고 면이 쫄깃해져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경성 치즈 40그램을 강판

에 갈 거예요. 몇 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럴 때면 방송 진행이 더뎌진다고 나가 버리는 시청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경성 치즈를 갈아 왔어요. (갈아 둔 치즈를 꺼내며) 치즈랑 달걀노른자, 간 후추를 한데 넣고 섞어 줄게요. 집게나 젓가락으로 둥글게 휘젓기만 하면 쉽게 눅진한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팬의 불을 끈 다음, ⓓ면을 팬에 옮기고서 면 삶은 물을 서너 국자 팬에 넣어요. 그리고 팬에 소스를 넣고 팬을 앞뒤로 흔들면서 집게로는 면을 집어 동그라미를 그리며 소스와 섞어 주세요. ⓔ이때 팬의 온도가 높으면 달걀노른자가 다른 재료와 어우러지기 전에 익어 버리니 주의해야 해요.

[E] 푸름: 방금 방송을 놓쳤어요. 집게로 면이랑 소스랑 섞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푸름 님, 팬은 앞뒤로 흔들면서 집게로는 면을 집어 동그라미를 그리며 섞어 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카메라 가까이 갖다 대며) 카르보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고소한 치즈 냄새에 표고버섯과 마늘에서 나는 향이 은은하게 더해져 콧속을 채우는군요! 저만의 카르보나라 요리법을 정리해서 제 누리 소통망 계정에 올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두 시에 잊지 말고 만나요.

(나)

구독자들이 직접 카르보나라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요리법을 정리해서 누리 소통망에 올려야겠어. ㉠재료를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요리에 처음 도전하는 구독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재료별 적정 사용량을 표시해 주고, 요리 과정을 고려하여 재료를 제시해야지. ㉡요리법을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간추려서 요리 과정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방송 녹화본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

40. (가)에 반영된 진행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가 시청각으로 전달되니, 필요에 따라 후각 정보를 말로 표현해야겠어.
②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니, 방송 중에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양해를 구해야겠어.
③ 주기적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니, 시청자에게 다음번 방송도 시청해 달라고 요청해야겠어.
④ 방송 진행이 늘어지면 접속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방송 전에 끝내 두어야겠어.
⑤ 혼자서 다수의 접속자를 상대하니, 방송에 접속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안내해야겠어.

41. [A]~[E]에 나타난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사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밝히고, 진행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② [B]: '꽃잎'은 지난번 방송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진행자는 시청자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C]: '들판'은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고, 진행자는 방송 순서를 변경하여 안내하고 있다.
④ [D]: '냠냠'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점을 언급하고, 진행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E]: '푸름'은 이미 끝난 동작을 다시 반복하기를 요청하고, 진행자는 자신이 그 동작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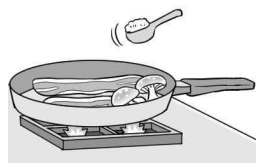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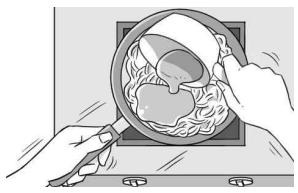
42. 다음은 (나)에 따라 작성한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이다. 작성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멋대로 맛있게')

• 카르보나라 재료 (1인분 기준)

스파게티 면	소금	베이컨	표고버섯	다진 마늘	달걀노른자	경성 치즈	후추
80g	10g (1ℓ당)	40g	2개	5g	2개	40g	5g

• 카르보나라 요리법

면 삶기 (소금 빼먹지 않기)	팬에서 베이컨을 볶다가 노릇해지면 표고버섯, 다진 마늘을 넣기 (중간 불로 볶기)	불을 끄고 팬에 면, 면 삶은 물, 소스를 넣어 섞기 (팬의 온도가 높지 않게 하기)
		
8분	5 ~ 6분	1분

* 소스 만들기를 보고 싶으면 **클릭**!
(동영상의 해당 부분으로 바로 연결돼요.)

좋아요(206) 댓글(34)

① 재료별 적정 사용량을 표시하기로 한 ㉠에는 재료의 분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를 활용하여 나타내자.
② 요리 과정을 고려하여 재료를 제시하기로 한 ㉠에는 재료들이 쓰이는 요리 과정에 따라 재료들을 구분하여 드러내자.
③ 요리법을 간략한 설명으로 안내하기로 한 ㉡에는 요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괄호 속에 간단히 제시하자.
④ 요리법을 그림으로 간추려 제시하기로 한 ㉡에는 방송에서 쓰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소요 시간도 제시하자.
⑤ 방송 녹화본을 볼 수 있게 한 ㉡에는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요리 과정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자.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조사 '대로'를 사용하여 카르보나라가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 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물을 끓이는 것이 면을 삶기 위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 어미 '-니까'를 사용하여 재료를 볶는 중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어미 '-고서'를 사용하여 면을 팬에 옮기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재료들이 어우러지기에 알맞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44 ~ 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 동아리 매이더

△△고 동아리 매이더

㉠ 매체에 관한 이슈를 알리고 생각을 더하며 서로 배운다!

㉡ 【게시판】
이슈 알리기
└인쇄 매체(9)
└음성 매체(5)
└영상 매체(8)
└뉴 미디어(9)

【공지】
㉢ 게시 글 올리고, 내용에 대한 생각 댓글 달기(3. 31.까지)
㉣ 3월 셋째 주 우수 부원: 윤솔(게시 글 3편, 댓글 9번)

㉮ '매이더' 부원 숙지 사항

이슈 알리기 - 뉴 미디어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

작성자: 윤솔

뉴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 OTT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유료 OTT의 국내 전체 이용자 수는 지난 몇 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유료 OTT 업체들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료 OTT 업체가 수익 증대를 위해 요금제 체제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대부분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한 구독료를 받는 방식뿐이었다. 하지만 일부 유료 OTT 업체는 요금제 체제에 광고를 보는 대신 구독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요금제를 신설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존과 같이 광고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요금제의 구독료를 인상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55% 정도가 유료 OTT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소비자 집단이 실제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정원 내가 이용 중인 유료 OTT도 요금제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배경을 알게 되었어. 광고를 보는 대신 저렴한 요금제를 택할지, 구독을 해지할지 고민돼.

민승 유료 OTT가 요금제 체제를 바꿨지만 내 주변 친구들은 구독을 해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요금제 체제 변화가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수익 증대로 이어져 콘텐츠의 질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현민 우리 학교 학생들도 유료 OTT를 많이 이용하는데, 10대들의 유료 OTT 이용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 유료 OTT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제시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지수** 내가 친구의 휴대 전화 연락처를 메신저에 붙여 넣는다는 걸 여기에 잘못 붙여 넣어 버렸어. 댓글을 지울게. 미안해.

44. <보기>는 ㉮를 클릭한 화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이더' 부원 숙지 사항

[동아리 소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매체에 관한 이슈를 서로 알리고, 알게 된 것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며 오늘날 매체 환경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원은 공지를 확인하고 제시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규칙]
- 동아리 부원들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게시판을 구성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각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글만 올립니다.
- 동아리 활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① <보기>의 '동아리 소개'를 보니, ㉠은 활동 목적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동아리명에 포함되는 글자를 부각하고 있군.
②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게시판 항목을 구별하여 매체 유형에 맞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군.
③ <보기>의 '동아리 소개'를 보니, ㉢은 부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카페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고 있군.
④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특정 부원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부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군.
⑤ <보기>의 '규칙'을 보니, ㉤은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사적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있군.

45. 위 화면을 바탕으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윤솔'은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찬반 의견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 '현민'과 달리, '민승'은 주변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였다.
③ '정원'과 달리, '현민'은 자신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④ '윤솔'과 '현민'은 모두, 통계 자료를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를 몰고 온 배경 상황을 이해하였다.
⑤ '정원'과 '민승'은 모두, '윤솔'의 글을 토대로 유료 OTT 업체의 요금제 체제 변화에 의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